

新羅 文學思想의 전개와 古典詩歌史의 관련 양상*

서철원**

〈차례〉

1. 문제 제기와 연구 대상
2. 義相의 文學관과 華嚴一乘의 詩語
3. 元曉의 언어인식과 和諍의 修辭
4. 崔致遠의 사상적 모색과 風流의 작용
5. 古典詩歌史와의 관련 양상
6.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신라의 사상가 의상, 원효, 최치원의 저술 가운데 언어와 문학의 본질과 효용에 관한 담론을 선별, 분석함으로써 초기 고전시가 텍스트의 창작 기반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錐洞記>에 드러난 의상의 언어인식은 ①일상어, ②삼승의 언어(논리적 수사), ③일승의 언어(문학적 수사, 시어)를 구별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의상은 이 가운데 포함관계와 동질관계를 混融시켰던 시어에 독자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法界圖>를 통해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종교적 경지를 화엄 일승의 시어로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원효는 삼승의 언어가 일승의 언어에 비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에도 나름대로 효용성을 발휘할 만한 영역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7-327-A0041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의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통해 여러 가지 쟁점[諍]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 사이의 조화·공존[和]을 가능케 했던 ‘和諍’의 수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화엄일승의 언어가 압축된 표현을 통해 함축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는 시어에 가깝다면, 화쟁의 수사는 화려하게 풀어헤친 논설에 한걸 가깝다. 최치원은 사상가와는 구별되는 문학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텍스트를 과거와 미래의 것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문학과 사상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언어·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풍류’라는 개념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하고자 시도했다.

이상의 성과를 토대로 고전시가사를 돌이켜 보면, 신라 향가는 일승의 언어와 삼승의 언어 사이의 상호 작용과 침투를 통해 서정성과 효용성, 감성의 영역과 수사방식의 층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와 계송에서는 사회적 효용성의 목소리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대신, 사상성의 구축과 종교적 인식의 심화를 통한 서정시로서의 개성이 한걸 강해진다고 평가했다.

주제어: 신라, 문학사상, 원효, 의상, 최치원, 향가, 시어, 추동기(화엄경문답), 화엄, 화쟁

1. 문제 제기와 연구 대상

본고는 신라의 사상가 의상, 원효, 최치원 등 3인의 저술 가운데 언어와 문학의 본질과 효용에 관한 담론을 선별, 분석함으로써 초기 고전시가 텍스트의 창작 기반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료의 부족 탓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초기 서정문학사의 구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면서, 문학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보였던 사상가들의 성과를 포함시켜 문학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고전시가사에서 ‘신라’는 향가라는 서정문학의 원류를 탄생시킨 시대인 한편, 최치원을 비롯한 이른바 賓貢諸子들을 중심으로 한 漢詩의 역량이 축적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¹⁾ 아울러 佛僧들의 偈頌²⁾과 각종 金石文, 歌詞 不傳歌謠 등이 문학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들에 관한 연구는 개별 작품과 장르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별적, 미시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을 產出한 공통 기반으로서 ‘신라’라는 현장의 실체는 점점 더 불투명해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향가의 창작 기반을 불교의 교리와 신앙³⁾ 또는 화랑의 風月道에서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⁴⁾에서 한시나 계송을 비롯한 다른 문학사의 片鱗들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시가 향가를 대체했던 것으로 보는 관점⁵⁾ 또는 한국서정시 전반을 和諍記號學의 틀에 비추어 설명하려는 의욕⁶⁾도 있었지만, 전자는 보편주의 문학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후자는 通時的 보편성의 검증에 주력함으로써 초기 서정문학의 실상과 신라문화와의 관련 양상에 집중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여기지는 않았던 듯하다.

- 1) 신라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호승희, 『신라한시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93~170면; 이구의, 『신라한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1~550면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2) 계송 자료는 김상현, 『향가와 계송과 불교사상』,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248~270면을 참조할 수 있다.
- 3) 다음 논저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운학, 『향가에 나타난 불교사상』, 동국역경원, 1978;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75; 장재진,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4; 이연숙, 『신라향가문학연구』, 박이정, 1999; 김승찬, 『신라향가론』, 부산대 출판부, 1999; 김창원, 『향가로 철학하기』, 보고사, 2004.
- 4)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1~226면과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61~160면.
- 5) 장원철, 『향가와 한시: 향가적 서정과 한시 미의식의 역사적 성립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5, 한국한문학회, 1995, 5~52면.
- 6) 이도흠, 『신라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1~296면;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 출판부, 1999, 1~503면에서의 다소 복잡한 모형은 이도흠, 『화엄의 패러다임으로 향가와 현대시 엮어 읽기』,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178~192면에서 다소 간결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흐름은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부족한 자료를 텍스트 또는 장르별로 분산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공통의 창작기반 또는 작시원리를 모색하여 자료 이해의 과편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로부터 해당 텍스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텍스트 또는 장르 사이의 계보 설정을 시도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눈을 돌려보면 여기서의 ‘공통의 창작기반 또는 작시원리’를 해명해줄 만한 문헌적 서술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현존하는 신라의 문헌론 관계 서술은 다음과 같다.

	수	명칭	주요 출전	비고
義湘 (625~702)	2	<錐洞記> (일명 <華嚴經問答>), <華嚴一乘法界圖>	『大正新修大藏經』卷45, 『法界圖記總錄』	唐 賢首의 저술로 알려졌다가 의상의 것으로 밝혀짐. ⁷⁾
元曉 (617~686)	2	『金剛三昧經論』 『大乘起信論疏』	『韓國佛教全書』	
崔致遠 (857~?)	4	『四山碑銘(4편)』	金石文, 『崔文昌候全集』, 『東文選』	

이들은 思想史 관련 서술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들로서, 문학 연구에서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의 문학관⁸⁾과 盤詩로서 의상의 <華嚴一乘法界圖>, 최치원의 문학사상 등이 거론되어 왔다. 본고는 사상사 연구의 대상으로서 주로 종교적 현장에서의 말하기와 글쓰기의 수사학적 전략을 거론했던 이들 논설에 문학 텍스트 창작의 방법을 시사하는 표현들이 潛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교적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온갖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여 수용자에게 설득과 공감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는 문학 텍스트의 수용 과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신라 문학사상사의 단면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 推斷한 것이다.

7) 관련 내용은 본고의 2장 참조.

8) 조동일, 「원효」,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44면; 김성룡, 「원효의 글쓰기와 중세적 주제」, 『한국문학사상사 1』, 이회, 2004, 64~90면.

여기서는 우선 위의 표에 따라 의상과 원효, 최치원의 문학사상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사상가의 인식 전반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에, 해당 논설에서 언어·문학 관련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思想과 관련한 전체적인 체계는 부차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동시대인임에도 의상을 원효보다 먼저 거론한 이유는 해외 유학 체험이 있는 의상의 인식이 보다 보편적인 쪽이었다면, 당대 사회에서도 독특한 평가를 받았던 원효는 보다 특수한 경향에 있었으리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의상과 원효가 활동했던 시대가 현존 향가의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때라면, 2세기가 지난 최치원의 활동기는 한시가 문학사의 중심이 되어가던 시기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최치원의 인식에 의상·원효와는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학사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3인으로부터 포착한 동질성과 차이점이 實存했던 서정시 텍스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사상가의 언어·문학 관계 논설을 통해 텍스트를 裁斷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문학과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라’라는 문화현장의 실체를 一貫性 있게 바라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2. 義相의 文學觀과 華嚴一乘의 詩語

2.1. <錐洞記>의 文學觀

義相(625~702)⁹⁾의 언어인식은 근래에 발굴된 <錐洞記>(일명 <華嚴經問答>)와 <華嚴一乘法界圖>(이하 <법계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

9) 의상의 法號에 대해서는 義相과 義湘의 이설이 있으나, 김지건, 「의상의 범취고」, 『의상의 사상과 신앙 연구』, 불교시대사, 2001, 44~100면의 성과에 따라 義相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다. 여기서는 <추동기>의 관련 내용을 통해 의상의 언어인식의 一端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계도>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검토하겠다.

의상은 불완전한 소통체계인 언어에 의존[依言]하기보다 언어를 떠난 [離言] 교감의 획득을 중시했던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¹⁰⁾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盤詩 형태의 <法界圖>를 남겨, 그가 언어를 떠난[離言] 경지로서 ‘詩’의 효용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인 발화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리를 함축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략으로서 詩語의 활용과 실천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의상이 ‘詩語’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認知하였는지를 알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논의에 제약이 있었는데, <추동기>가 알려짐으로써 의상의 언어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추동기>는 의상의 제자 眞定の 모친이 타계했을 때 의상이 했던 설법을 기록한 강의록이다. 『大正新修大藏經』 권45에 의상의 同門인 唐의 法藏和尚 賢首의 作 <華嚴經問答>이란 이름으로 실려 있다가, 고려 초 均如의 著述에 15차례 인용된 <추동기>와의 대조를 통해 異本 관계의 동일 저술임이 밝혀졌다.¹¹⁾ 게다가 <추동기>의 언어관과 性起思想이 의상의 것들과 同軌임도 드러났다.¹²⁾ 따라서 현존하는 <추동기>를 의상의 所作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추동기>에서 언어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말이나 의미를 만들어 내거 내[生] 또는 그렇지 않는 것[不生]에 대한 분별과 그 초월로부터 시작한다.

“물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10) 이는 원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 ‘의언’을 통해 ‘이언’의 경지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11) 김상현, 「추동기의 성립과 그 이본 화엄경문답」,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338~353면.

12) 박태원, 「화엄경문답과 의상의 일승·삼승론」, 『원효와 의상의 통합사상』, 울산대 출판부, 2004, 78~105면.

“답하겠다. 무릇 성스러운 가르침[聖敎]이 담긴 말은 모두 그 志趣가 근기와 인연에 맞추어서 있는 것이어서, 약으로서 능히 중생의 병을 다스릴 수 있다. 만약 生으로써 다스릴 수 있으면 곧 生으로써 하고, 만약 不生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면 곧 不生으로써 하는 것이다. 만약 法空이 生하거나 不生하다면, 生이 옳고 不生이 그르거나, 非生이 옳고 生이 그르다. 법이라는 것은 불생과 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즉 생과 불생이 병을 고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수 있다.”¹³⁾

여기서 “生”은 문맥상 “聖敎”를 표현하기 위한 발화로 볼 수 있다. 가르침의 효용은 수용자[중생]의 병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드시 의미를 갖춘 언어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수용자의 수준 또는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오직 발화 여부에만 집착하여 물음을 계속하는 제자에게 “가르침은 상황에 따라 있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니라”¹⁴⁾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그친다면 어느 승려의 方便說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추동기>는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느 상황이나 적용될 만한 보편적 가치의 ‘法’을 표현하고자 苦心한다.

“물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하겠다. 이것은 곧 모든 존재의 참다운 본성으로서 머뭇이 없는 본래의 도리이다. 머뭇[住]이 없는 본래의 도리이기 때문에 곧 가히 매임[約]이 없는 법이며, 가히 매임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곧 分別相이 없고, 分別상이 없기 때문에 곧 마음이 움직인 곳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증득한 자의 경지

13) 『大正新修大藏經』 권45, 609면, a20행.(이하 관례에 따라 “0609a20”과 같이 略稱한다. 번역은 박태원(2004)의 성과를 참조하고, 문맥이 어색한 부분을 약간 수정했다.)

14) “但言, 敎有於機緣所由不有於法.”(『大正新修大藏經』 0609b01).

이고 아직 증득치 못한 자가 알 바는 아니니, 이것을 존재의 實相이라 부른다. 모든 존재가 그러하니, 여기가 十佛의 普賢境界이다.”¹⁵⁾

머뭇과 매임, 다시 말해 고정된 의미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분별이 없어지고 “證得”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증득의 다른 말인 “十佛의 普賢境界”란 『화엄경』 전체의 결론인 <보현행원품>의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주지하듯 『화엄경』은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경지를 가장 화려한 언어의 彫琢을 통해 실현한 경전이다.¹⁶⁾

<추동기>에서는 『화엄경』의 결론을 언어의 이상적 경지로 보았는데, 그것을 유동적·가변적인 의미망의 無限 生成을 통한 증득으로 표현하였다. 『화엄경』의 화려한 언술은 무한한 의미망의 생성을 위한 장치라는 셈이다. 언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머물고 매인다면 보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없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임시의 방편만이 존재하리라는 것이다. 다음 기록을 보면 의상의 언어에 대한 이원론적 인식이 드러난다.

“물습니다. 이미 보현의 경계라 한다면, 보현은 곧 상황[機緣]을 대함에 있어서 남기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또한 모든 존재의 實相이 곧 다른 사람들의 경계일 수 있습니까?”

“답하겠다. 또한 그럴 수 있다. 보현은 자신이 증득한 법과 같이 상황에 남기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正義 가운데는 義語를 따르고, 正說 가운데는 語義를 따른다.’고 하는 경전의 말이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다.”

“물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답하겠다. 正義라 하는 것은 一乘의 뜻이고, 正說이라 하는 것은 三乘의 뜻이다. 삼승의 뜻에서는 情識에 따라 安立하기 때문에 그 뜻이 단지 말 가운데 있을 뿐이다. 말로써 뜻을 포섭하기 때문에, 뜻이 곧 말에 있다. 일승에서는 언어가 곧 뜻의 언어[義語]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뜻의 언어[義

15) 『大正新修大藏經』 0609b07.

16) 가마다 시게오, 한형조 옮김, 『화엄의 사상』, 고려원, 1987, 29~35면 참조.

語]이고, 뜻이 곧 언어의 뜻[語義]이기 때문에 모든 뜻이 언어의 뜻[語義]이다. 언어가 곧 뜻이기 때문에 뜻치고 언어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뜻이 곧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치고 뜻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뜻과 언어, 언어와 뜻이 無碍自在하고 圓融無碍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 緣起의 머물 없음을 나타낼 수 있게 말을 함에 있어, 종일토록 말하여도 말한 것이 없다. 말한 것이 없으므로 말하지 않은 것[不說]과 다름이 없는 말이다. 말이 이미 이러하니, 능히 듣는 것도 또한 이러하다. 하나를 듣는 것이 곧 일체를 듣는 것이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¹⁷⁾

“正義”를 “義語”에, “正說”을 “語義”에 각각 대응시킨 다음, “正義”와 “正說”을 각각 一乘과 三乘의 언어로 구별 짓고 있다. 일승의 언어라는 正義가 뜻의 언어, 곧 ‘義-語’의 경지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삼승의 언어인 正說은 어의, 곧 사전적 의미의 재현에 충실하다는 의미이다. 일승의 언어와 삼승의 언어에 대해서는 의상의 스승인 智儼이 『華嚴孔目章』에서 제기한 이래로 통칭 三乘-乘說이라 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¹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

불교에는 껍질과 알맹이가 있다. 말과 글과 이론과 형식은 그 껍질이며, 私心 없는 마음됨, 훌륭한 말과 행동이 저절로 뒤따르는 마음됨, 이러한 마음됨은 그 알맹이다. 전자를 또 불교에서는 三乘, 세 가지 가르침, 또는 세 가지 길이라고 하고, 후자를 三昧에서 나오는 一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¹⁹⁾

말하자면 불교의 언술은 언어의 이론과 형식에 따른 껍질[三乘]과 종교적 가치를 지닌 마음됨[一乘]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얼핏 보면

17) 『大正新修大藏經』 0609b12.

18) 智儼, 『華嚴孔目章』, 『大正新修大藏經』 0538a~0538b.

19) 이기영, 『화엄일승법계도의 근본정신』, 의상기념관 편, 『의상의 사상과 신앙 연구』, 불교시대사, 2001, 253~254면.

형식과 내용 사이의 表裏關係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불교적 텍스트들 사이의 차별상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²⁰⁾ 삼승의 언어가 말·글·이론·형식 등 인과적 상식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일승의 언어는 ‘三昧’라 불리는 종교적 경지를 담보한 상태에서 초논리적인 원리에 의하여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승의 언어는 A이면서 not A일수도 있는, 삼승의 언어로서 표현 불가능한 일종의 ‘詩的’인 상태에 관한 진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삼승과 일승의 분별을 논리와 감성, 산문과 시의 차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일승에서의 ‘一’이 ‘多’를 포함한 ‘一’이라면, 그것은 문학적 상징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

<추동기>에서는 일상의 언어와 구별되는 聖敎를 담은 종교적 언어에도 일승과 삼승의 구별이 있다고 생각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들을 우열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 점은 다음에 살펴볼 원효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원효는 일상어와 종교적 언어를 각각 “文語”와 “義語”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이들의 통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상은 “하나를 듣는 것이 곧 일체를 듣는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일승의 작용이 삼승과는 차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¹⁾

“물습니다. 이와 같이 능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를 듣는 것이 곧 일체를 듣는 것이고 일체를 듣는 것이 곧 하나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三乘의 법이 단지 언어만 있는 것이라면, 곧 나타내는 뜻이 없는 것이니까?”

20) 균여를 비롯한 화엄승려들의 敎判論에서 『법화경』을 ‘삼승’으로, 『화엄경』을 ‘일승’으로 파악한 점은 그 언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로는 『법화경』은 서사적 인과관계에 따라 산문적으로, 『화엄경』은 난해한 비유와 상징을 엮어 시적으로 구성된 텍스트이다.

21) 의상이 <추동기>와 <법계도>를 통해 삼승과 일승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화엄사상을 설명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고, 이와 같은 논의를 ‘삼승·일승론’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있었다. 박태원, 『의상의 화엄사상』, 울산대 출판부, 2005, 53면.

“답하겠다. 나타내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나타내는 뜻은 단지 언어로 나누어놓은 것에만 있다. (삼승의) 一相法門이 말하는 있음[有]이란 것은 단지 있음 가운데 끝나니 있지 않음[不有]은 아니며, 있지 않음[不有]이란 것은 곧 있지 않음 가운데 끝나니 있음의 뜻은 아니다. 이와 같은 一相法門은 비록 二諦가 없고 相卽相融하지만 그 事法에 卽하여 서로 圓融自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와 뜻의 나타내는 것과 나타내지는 것이 나뉘어 섞이질 못한다. 그런데 一乘의 正義에서는 이와 같지 않다. 一法을 거론함에 따라 일체법을 남김없이 포섭하기 때문이며, 卽과 中의 관계 속에서 自在롭기 때문이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²²⁾

삼승의 언어로는 “所詮之義”를 갖출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義가 語에만 드러나 있을 뿐 能詮의 ‘語’와 所詮의 ‘義’가 괴리되어 동일성을 지닐 수 없다고 답변한다. 일승의 언어가 ‘동일성’을 추구한다면 삼승의 언어는 어느 정도 괴리와 차별이 존재하는 바탕 위에서 언술을 진행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어서 일승의 언어만이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卽”·“中”의 관계가 자유롭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卽”은 동질관계, “中”은 포함관계를 뜻한다. “相卽”과 “相入” 역시 이를 표현한 것이다. 은유는 동질관계, 환유는 포함관계를 통해 조직되는 비유의 수사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卽”과 “中”을 여기에 바로 대응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대칭이 복합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언어로 하여금 미묘한 기능을 말도록 하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추동기>에서는 요소와 요소들끼리의 卽·中, 관념과 관념들 사이의 동질관계와 포함관계로 얽힌 의미망의 完全性을 일승과 삼승을 구별하는 척도로 삼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일승의 언어를 곧 ‘詩語’에, 삼승의 언어를 논리적 인과성을 따르는 일상의 언어에 가깝다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22) 『大正新修大藏經』 0609b27.

2.2. <法界圖>와 華嚴一乘의 詩語

<법계도>에서는 삼승과 일승의 관계가 보다 명료하게 표현된다. 의상은 <법계도>의 圖相을 설명하면서, “도장의 모습에 따라 육상을 밝혀 일승과 삼승이 主와 伴으로 서로를 이루어 준다”고 하였다. 주와 반이라는 말이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인지, 또는 일종의 주종관계에 대한 서술일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도장의 모습에 따라 육상을 밝혀 일승과 삼승이 主와 伴으로 서로를 이루어 주며 진리의 체계를 나타냄을 보이고자 한다. (중략) 일승과 삼승도 이와 같아서 주와 반으로 서로 돕고, 일체도 아니요 떨어진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어서 비록 중생을 이롭게 하나 오직 중도에 머문다.²³⁾

일승과 삼승의 관계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한 것이지만, 일승이 主가 되고 삼승이 伴이 된다는 표현은 일단 문학적 修辭인 비유와 상징, 초월적 관계의 설정이 <법계도>의 根幹을 이루는 한편, 논리적 수사방식은 문학적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일단 <법계도> 본문에서 일승과 삼승 가운데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법계도>는 총 30구 21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卍자의 도상을 그리며 마지막의 佛과 처음의 法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띠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순환 구조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법계도>에서 <추동기>에 보였던 4구의 “證智”와 18구의 “十佛普賢大人境” 등의 개념어가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인식과 관련하여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일승의 언어가 지닌 속성이라 하였던 中·卽의 관계를 설명한 7~8구이다.

23) 의상,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21~2면.

제7구: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으며[一中一切多中]

제8구: 하나가 곧 일체이며,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一卽一切多卽].²⁴⁾

7·8구는 포함관계[中] 및 동질관계[卽]에서의 분별적 인식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도 초월하라는 의미이다.

제9구: 한 티끌 속에 시방을 포함하고[一微塵中含十方]

제10구: 모든 티끌 중에도 이와 같다[一切塵中亦如是].

- 공간적 분별의 폐기.

제11구: 한량없이 오랜 겁이 곧 일념이요[無量遠劫卽一念]

제12구: 일념이 곧 한량없는 겁이다[一念卽是無量劫].

- 시간적 분별의 폐기.

13구 이하는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정각이요[初發心時便正覺](제15구)”, “생사와 열반은 언제나 함께 어우러져 있다[生死涅槃常共和](16구)” 등의 대립적 소재들을 ‘A=B’ 형식으로 연결시킨 명제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논리적 연관관계가 불투명하고, 따라서 語義가 확실치 않으므로 일상적 인과성에 충실한 삼승의 언어라 하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논리적 언어로는 밝히기 어려운 종교적·서정적 차원의 진실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卽·中의 관계 설정이 자유로운 표현이 <추동기>에서 일승의 언어, 義語로 불렸던 것들의 사례이다.

이와 같은 초월적 인식은 화엄사상 일반에서 널리 보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상은 이와 같은 진술을 사상적 담론의 범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盤詩’라는 양식을 통해 표현시킴으로써 ‘卽’과 ‘中’을 서정시의 수사

24) 번역은 김호성, 윤옥선의 『한글대장경』, 동국대 역경원, 1994, 238권 수록본을 따랐으며, 이하 같다.

방식에 포함시켰다. 서정시 특유의 절제된 언어를 통해 奧妙한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시를 통한 사상의 표현을 시도했다는 점이 의상의 문학사상이 지닌 실천적 측면이다.

<추동기>에 드러난 의상의 언어인식은 ①일상어, ②삼승의 언어(논리적 수사), ③일승의 언어(문학적 수사, 시어)를 각각 구별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이 가운데 포함관계와 동질관계를 混融시켰던 시어에 독자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법계도>를 통해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종교적 경지를 시어으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원효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²⁵⁾

3. 元曉의 언어인식과 和諍의 修辭

元曉(617~686)의 언어인식은 『大乘起信論疏』의 이른바 “因言遺言[언어를 통해 언어를 떠남]”²⁶⁾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文語와 義語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에 원효사상의 본질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²⁷⁾ 이 주장의 바탕에는 7세기 원효의 문학관을 각종 문학이론과 아울러 텍스트 분석의 준거로서 적극 활용해 온 ‘화쟁기호학’이 자리

25) 의상과 원효의 차이에 관해서는 김성룡, 앞의 글. 85면에서 시와 노래, 송고와 비속, 정제로운 응축과 방박한 풀이 등으로 대비되었는데, 여기서는 언어인식의 同異만을 다루고자 한다. 김성룡의 추론을 활용한 이유는 논자에게 전적으로 동의해 서라기보다 의상과 원효의 차이점을 비교적 분명하게 부각시킨 점 때문이다.

26) 원효, 은정희 역, 『大乘起信論疏·別記』, 일지사, 1991, 108면.

27) 이도흠, 「현대사회의 위기와 대안의 패러다임으로서 화쟁사상 6: 이성의 도구화와 언어와 진리의 불확정성-이성은 해방의 빛인가, 굴레인가: 포스트모더니즘 對 因言遺言」, 『법회와 설법』,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01년 10월호 참조. 이도흠은 여기서 文語가 “일상 언어의 속성에 집착해 낱말이나 문맥에 얽매이는 세속의 말, 상투적 의미로 된 언어기호”라면, 義語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문맥을 넘어서서 세계의 실체를 파악해 드러내는 말”을 이른다. “문어는 세계를 왜곡하지만, 우리는 의어를 통해 세계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잡고 있다. 그러나 비단 화쟁기호학이 아니더라도 원효의 글쓰기 전략을 분석하면서 “대립적 계기의 초월”²⁸⁾이 큰 비중을 두고 다루어진 것이나, 과거 국토통일원에서 원효에게 지녔던 관심²⁹⁾ 등을 돌아켜보면 원효 사상의 가장 큰 매력은 그 ‘통합적 인식’-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건-에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앞서 거론한 의상과의 언어인식의 차이점만을 중심으로 원효의 문학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원효의 통합적 인식을 ‘和靜’으로 지칭해 온 기존 연구에 동의한다. 다만 여기서는 의상의 ‘화엄일승’에 對比되는 術語로서 ‘화쟁’을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거론했듯이 의상은 일승의 언어[義語]와 삼승의 언어[語義]를 구분하고, 완전한 동질성의 구축에 미치지 못했던 삼승의 언어를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원효 역시 일승의 언어[부처의 설명 : 義語]와 삼승의 언어[중생의 설명 : 文語]를 개념적으로는 구분하는 것에는 동의했다.³⁰⁾

그러나 의상처럼 主와 伴의 관계로서 이들을 서열화시키기보다, 일종의 相對·緣起에 가까운 관계처럼 인식하였다. 앞서 들었던 “因言遣言”이라는 계기적 표현도 그렇거니와, “말을 떠난 진리[離言眞如]를 말에 기댄 진리[依言眞如]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³¹⁾는 원효의 생각은 언어의 종류를 서열화했던 의상과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반드시 일승의 언어가 아닐지라도 궁극적인 진여에 이르기 위한 方便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의상의 ‘화엄일승’과 원효의 ‘화쟁’ 사이의 거리로 파악하고자 한다.³²⁾

28) 김성룡, 앞의 글, 70면.

29) 국토통일원은 1987년 원효의 사상세계를 총괄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했다. 이 성과는 김지건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민족사, 1989)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30) 문어와 의어의 관계에 관해서는 원효, 은정희·송진현 역, 『金剛三昧經論』, 일지사, 2002, 437~444면의 번역문 참조.

31) 원효, 은정희 역, 『大乘起信論疏』, 일지사, 1991, 103~112면 참조.

32)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의상이 일승에 초점을 맞추고 삼승을 근거에 따른 因果로 보고 있다면, 좀더 언어의 속성에 대해 성찰한 원효는 삼승의 언어를 방편으로 허

널리 알려졌듯이 원효는 ‘화쟁’의 언어를 통해 여러 학파에게서 언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론들을 화해시키고자 하였다. 『대승기신론소』 머리 부분에서 “대승의 體는…오히려 백가의 언설 안에 있다”고 하여 여러 학파들이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³³⁾ 여러 학파의 말이 다 義語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각 학파들의 優劣을 서열화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의 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효의 생각은 『涅槃經宗要』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마치 장님들이 각각 코끼리를 말하는데 비록 사실대로는 언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코끼리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佛性を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섯 가지 진리[六法] 그대로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여섯 가지 진리를 떠난 것도 아닌데 여기 여섯의 주장 또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³⁴⁾

각각의 학파가 내세우는 주장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특정한 국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옳은 진리일 수 있지만 전체적·총체적인 깨달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여러 학파의 말이 모두 義語가 아니라는 식의 不定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여섯 가지 진리를 떠난 것도 아닌데 여기 여섯의 주장 또한 그러함”이라고 했듯이 부분적인 진리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생각의 무게중심이 있다. 원효는 離言[이치]과 依言[말]이 상호

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선 장에서 거론한바 의상이 자신의 사상을 詩語를 통해 정교화하고, 시어로서 일승의 언어가 지닌 본질에 대하여 깊이 천착한 지점에 보다 주목하였다. 말하자면 원효가 方便으로써 활용한, 唯識思想에 기반한 화려한 논리적 산문의 수사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일승의 詩的 체현을 의상이 시도했던 것에 의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이해와는 다소 다른 지점에서 의상과 원효의 사상을 주목하게 되었다.

33) 최유진, 「원효에 있어서 화쟁과 언어의 문제」,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예문서원, 2002, 373면.

34) 원효, 『열반경종요』, 『한국불교전서』 1책, 539a. 최유진, 앞의 글, 375면 재인용.

의존적인 관계라 하였고, 특히 “입을 다문 大士와 직접 눈길로 본 丈夫가 아니고서야 누가 능히 언설을 떠난 대승을 논할 수 있겠는가”³⁵⁾라고 하여 依言, 곧 언어적 체험의 미묘함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⁶⁾ 말은 局部的 표현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 때문에 각 학파의 주장이 큰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論爭으로써 話諍에 이르는 언어의 체험은 깨달음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원효가 삼승의 언어가 지닌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을 긍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 장에서 거론했던 4가지의 내용과 언어관을 중심으로 의상과 원효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의상	원효
依言·離言의 관계	의언을 부정하고 이언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음.	의언을 통해 이언에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봄(『대승기신론소』).
能詮·所詮의 관계	삼승에서는 괴리, 일승의 언어에서만 분별을 벗어날 수 있음(<추동기>).	진여는 능·소의 분별과 상응하지 않음(『대승기신론소』).
一乘·三乘의 역할	주종 또는 서열관계로 파악 (<추동기>·<법계도>).	文語와 義語를 하나로 아우름 (『금강삼매경론』).
卽·中에 대한 인식	일승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 (<추동기>·<법계도>).	기본적인 차이는 없음.
언어관	華嚴一乘의 시어 중심 (서정성 중심).	和諍을 통한 논쟁적 상황의 합일 (서정성과 효용성의 병존).

의상의 사상은 일상적 依言보다 초월적 離言을 염두하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효는 『大乘起信論疏』에서 眞如門을 설명하면서 “一法界 大總相의 法門體”라는 초월적·전체적인 “離言”의 측면과 더불어, “언설에 기대어[依言說]” 분별되어 “如實空”과 “如實不空”으로 나뉘는 측면을 함께 眞如의 양면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언설의 궁극이 말에 의하여 말을 버리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양면의 대립에 집착하기보다 “능·소의

35) 원효, 『대승기신론소』, 『한국불교전서』 1책, 733b. 최유진, 앞의 글, 366면 재인용.
 36) 최유진, 앞의 글, 364~366면.

분별과 상응하지 않는” 방식의 상대하여 성립하는 존재의 원리에 더 치중하였다. 원효에게 참되고 한결같은[眞如] 진리란 의언과 이언의 측면을 함께 지닌, 요컨대 문어[삼승의 언어]와 의어[일승의 언어]를 하나로 아우른 본질인 것이다. 말하자면 삼승의 언어가 일승의 언어에 비해 다소 제약이 있음에도 나름대로 효용성을 발휘할 만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원효가 의상에 비해 갖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언어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온갖 쟁점[諍]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 사이의 조화·공존[和]을 가능케 했던 ‘화쟁’의 수사가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정리하면 의상은 離言의 요건을 갖추고 언어의 한계를 벗어난 언어로서 화엄일승의 시어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시어가 아닌 종교적 언어의 수사방식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원효는 시어가 아닌 종교적 언어에도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역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양자는 모두 시어가 갖추어야 할 서정성의 중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의상은 시어가 지닌 함축성을 보다 유효한 수사방식으로 여긴 반면, 원효는 시어와 일상어의 장점을 並存시킨 수사의 전략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崔致遠의 사상적 모색과 風流의 작용

원효와 의상은 비유와 상징성이 강한 어휘를 일승의 언어, 말하자면 詩語로 간주하고 그 가치를 긍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의상이 일승의 언어에 배타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과는 다소 다르게 원효는 삼승의 언어, 논리적 수사방식을 갖춘 어휘에도 일정한 가치를 부여했다. 의상이 서정성의 발현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과는 다소 달리, 원효는 서정성과 효용성의 並存을 지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崔致遠(857~?)은 원효와 의상보다 약 200년 이후의 사상가였으며, 초

기 漢詩史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다. 특히 포용적인 진리 인식과 관련하여 원효와 합치되는 언어·문자 인식을 보이고 있다.³⁷⁾ 최치원의 언어·문자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四山碑銘』이다. 『사산비명』이란 최치원이 찬술한 4편의 禪僧 또는 사찰의 비문으로, <大崇福寺碑銘>과 <眞鑑禪師碑銘>, <朗慧和尚碑銘>, <智證大師碑銘> 등이다.³⁸⁾

이 가운데 <대승복사비명>에는 유자로서의 인식이, <지증대사비명>에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돋보이는 한편 언어·문학론 관련 서술은 거의 없다. <진감선사비명>에는 유교와 불교의 共存, 離言眞如의 세계를 인정하는 등의 인식이 단편적으로 보인다.³⁹⁾ 그러나 『사산비명』 가운데 가장 장형으로서 무열왕에 필적할 만한 사회적 실천을 보인 朗慧和尚 無染(800~888)의 비명에는 언어·문학과 思想의 역할을 비교한 독특한 서술이 보인다.

중국에 들어가 배운 것은 대사나 내가 피차 다름이 없건만, 스승으로 추앙 받는 이는 누구이며 일꾼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찌하여 心學者는 높고 口學者는 수고롭단 말인가? 그러므로 옛날의 군자는 학문하는 것을 삼가서 하였다.

그러나 심학자가 덕을 세웠다면 구학자는 말을 남겼을 것이니, 저 ‘덕’이란 것도 혹 ‘말’에 의지하고서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말’이란 것도 혹 ‘덕’에 기대어야 썩지 않고 오래도록 전할 것이다. 일컬어질 수 있다면 ‘마음’이

37) 최영성, 「고운의 문장과 사상표현의 문제」,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1, 126면. 그러나 논자도 고백했듯이 이 둘 사이의 직접적 관련 양상을 입증할 만한 문헌 자료는 드물다. 다만 <낭혜화상비명>의 몇몇 구절로부터 최치원의 원효 독서 체험을 추정할 따름이다.

38) 『사산비명』에 관해서는 유영봉, 『사산비명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의 종합적 고찰 이후로 최근의 최영성, 앞의 책과 이구의, 『최치원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4, 392~533면 등의 연구가 있다.

39) 이구의, 앞의 책, 445면과 458면.

능히 먼 後來者에게 알려질 것이요, 썩지 않는다면 ‘말’ 또한 옛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⁴⁰⁾

먼저 사상가[心學者]인 낭혜화상은 추앙을 받지만 문학가[口學者]로만 평가받는 자신은 일꾼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간접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사상가의 성과와 문학가의 언어 텍스트가 相補的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상가의 덕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문학가의 텍스트가 과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한마디로 문학과 사상의 효용을 具足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 모두에 걸친 소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최치원이 자신의 문학 창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언어 텍스트는 과거의 사상을 미래에 전해주고, 미래의 수용자에게 과거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가는 자신의 사상을 텍스트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수사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문학가는 자신의 표현물에 수용자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입장은 원효의 ‘화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상가와 구별되는 ‘文人’의 입장을 토대로 언어의 효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한 점에서 남다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최치원은 기존의 개념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개념어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 적도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그는 ‘風流’라는 개념어를 통해 한국의 고유사상을 설명하였다. 풍류라는 고유사상에 실제로 三敎의 장점이 蘊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3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언술 자체는 다른 자료의 인용이라기보다는 최치원 자신의 평가에 가깝다. 게다가 ‘풍류’라는 용어 자체는 사상사적 술어라기보다 예술 감상 또

40) 최치원, 최영성 역, 『최치원전집 1: 사산비명』, 아세아문화사, 1998, 60면의 성과를 따랐다. 이하 같다.

는 유흥의 현장에서 더 자주 보이는 말이다.⁴¹⁾ 보다 중요한 것은 풍류의 개념 실질이 아니라, 이 개념이 당대인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줄 수 있었는지 여부일 것이다.

崔致遠의 <鸞郎碑序>에, “우리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 이른다. 그 가르침[教]의 기원은 『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三教[佛·仙·孔]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그리하여 ①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아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魯司寇[孔子]의 主旨 그대로며, ②또 그 함이 없는 일에 처하고 말없는 教를 행하는 것은 周柱史[老子]의 宗旨 그대로이며, ③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을 행함은 竺乾太子[釋迦]의 教化 그대로라.”고 하였다.⁴²⁾

3교의 장점을 거론하며 ‘풍류’는 이러한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풍류’란 무엇보다도 중생을 교화하는 사회적 효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현묘한 도리로 평가받는 것이다. 여기서 인용문의 ①, ②, ③으로 구분해 놓은 3교의 가르침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 이들은 다시 말해 ①효도와 충성, ②말을 앞세우지 않는 실천, ③착한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두가 사회적 차원의 실천과 관련이 깊다. 이 가운데 ②는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라 하여 “無爲”와 “不言”

41) 그러나 사상사에서의 담론과는 별개로 ‘음악사상’으로서 풍류에 주목한 연구성과도 있다. 한홍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한국고대음악사상』, 예문서원, 2007, 26~28면에서 한국 음악사상의 원류로서 ‘풍류’라는 용어에 주목하고 화랑도의 활동과 향가의 역할까지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논자는 풍류도 정신이 화랑의 이념으로 발전하여 “현세에서의 공동체의 조화”를 음악사상으로서 풍류의 역할로 강조하고, “향가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역으로 풍류도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7면)”고 하였으며, “다양한 사상의 조화로 온 혼용(28면)”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다양성의 혼용을 풍류의 실질로 파악한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다만 “바탕풍류도가 삼교의 영향에 의해 화랑풍류도로 변모(61면)”했다는 등의 서술은 다소 불투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4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이병도 역).

이라는 개념적인 덕목을 “處”와 “行”의 실천적 영역으로 풀이한 점이 돋보인다. 게다가 ③은 꼭 불교에만 국한된 가르침은 아닐 것임에도, ‘風流’를 사회적 실천의 場에 연결시키고 과거에도 못 백성을 교화했던 규범으로 기억시키기 위해 최치원은 3교의 특질이 애초부터 풍류에 속해 있었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는 개념어에 대한 기억이 지닌 사회적 과급력, 말하자면 언어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갖추어진 수사방식이다. 최치원에 의해 당대인들의 ‘풍류’ 개념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고, 고유사상의 역할에 다시금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치원은 사상가와는 구별되는 문학가의 역할을 담지하고, 텍스트를 과거와 미래의 것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문학과 사상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언어·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풍류’라는 개념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과급력을 높이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5. 古典詩歌史와의 관련 양상

지금까지의 서술을 통해 신라 문학사상의 전개 양상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상의 ‘華嚴一乘’이 詩語와 그밖의 언어를 구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면, 원효의 ‘和諍’은 대칭하는 言說들 사이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의상의 언어 인식을 서정성의 추구라고 한다면, 원효의 수사방식은 문어와 의어의 통합, 서정성과 효용성의 竝立을 통한 圓融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만하다. 후대의 최치원은 언어의 사회적 효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風流’란 개념어를 재해석함으로써 그 사회적 역할과 작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차이라기보다는 각각 당대의 문학 텍스트 창작에서 중시되었던 원리와 관념을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양상을 이제부터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향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살펴 보겠다. 아래의 표에서는 일단 이 시기의 작품들을 서정성과 효용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의 효용성은 여러 地層의 현실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를 그 매개로 삼는 일련의 시도를 말한다. 여기서의 효용성을 현존 향가 텍스트의 문화사적 역할을 고려하여 다시 종교성, 정치성, 주술성과 수사학(설득·감화)으로 세분하였다. 이 가운데 종교성은 수용자와의 교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정성에 한걸 가까이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수사학(설득·감화)은 화자에게 적대적인 수용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종교성과는 구별하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상과 원효, 최치원의 활동 연대와 겹치는 부분이다.

	왕명/작가명 (연대)	작 품 명				역사적 배경
		서정성	효 용 성			
			종교성	정치성	주술성	
7 세 기	진평왕 (579~631)			해성가		통일전쟁의 시작기, 불교미술의 발흥기
	선덕여왕 (632~646)		풍요		서동요	
	문무왕 (661~680)		원왕생가			통일신라 문화의 형성기
	효소왕 (682~701)	모죽지랑가				
8 세 기	성덕왕 (702~736)	현화가 원가		(원가)		전제왕권 실현기
	경덕왕 (742~764)	월명	제망매가		도술가	정치적 격동기, 미술사의 황금기
		충담	찬기파랑가		안민가	
9 세 기 이 후	원성왕 (785~799)				우적가	독서삼품과 설치
	현강왕 (875~885)				처용가	빈공제자(賓眞譜子) 귀국
	고려 광종 (949~975)	(보현시원가)			보현시원가	전제왕권 실현기

이 표는 경우에 따라 전승담[배경설화]에 거론된 텍스트의 효과에 주목하기도 하고, 詩語 자체의 정서적 효과를 重視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 서정주체의 표현 욕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수용자에게 정서적 공감을 보일 여지가 큰 경우에 限하여 ‘서정성’을 중심적 효과로 우선 看做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측면의 효용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차후에 고려한 것이다. 가령 <모죽지랑가>나 <제망매가> 등의 문면에서는 ‘슬픔’의 정서적 동기를 표현하여 독자와 공감을 얻을 여지가 큰 데 반하여, <풍요>와 <원왕생가> 등은 정서보다 주술·종교의 목적성이 다소 크다. 이와 같은 문면의 차이와 텍스트-전승담 사이의 입체적 관계를 고려하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는 <혜성가>와 <원가>처럼 효용성의 층위가 여러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고, 자의적으로 단순화한 부분이 없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서정성과 효용성의 공존, 조화에 신라 문화의 특질이 自在하다는 것에 본고의 주안점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혜성가> 또는 <서동요>와 같은 텍스트를 매개로 한 효용성을 겨냥했던 향가의 작품세계는 의상과 원효의 활동 연대인 7세기 중·후반 이후로 종교성과 서정성을 지향하는 흐름을 띤다. 특히 <원왕생가> 전승담에는 원효의 개입도 눈에 띈다.⁴³⁾ <풍요>와 <원왕생가>가 이룩한 정도신앙을 바탕으로 한 宗教詩의 작품세계는 인물 제재를 직접 선택했던 <모죽지랑가>에 이르러 곁에 있는 사람의 쇠락·소멸을 슬퍼하는 신라 향가 특유의 모티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후로 <제망매가>, <찬기파랑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티프는 지속·변주된다. 요컨대 의상과 원효의 시대에 구축된 종교성과 서정성의 발현이 죽음과 소멸에 침잠하는 신라 향가의 모티프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치원의 시대를 전후하여 향가 전승담에는 도적, 疫神 등 화자에게 적대적인 수용자를 향가 텍스트를 통해 설득·감화시키는 화소가

43) 莊이 부끄러워 물러가 곧 元曉法師에게로 가서 津要를 懇求하였다. 曉가 鍾觀法을 지어 指導하였다. 『三國遺事』 5卷. 7. 感通 <廣德嚴莊>.

등장하는데, 이는 언어 텍스트의 효용을 상대방에 대한 설득·감화로부터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는 한편 언어의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했던 최치원의 사유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가의 효용성이 주술성에서 종교성으로 전환하면서 서정성의 범위가 확장되고, 수용자를 설득·감화시키려는 수사방식이 주목받는 등 효용성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상·원효·최치원의 모색이 기여했던 바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 한시와 계송의 경우를 살펴 보겠다. 晚唐風과는 구별되는 신라 한시의 독자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9세기 빈공한시를 중심으로 ‘淸澄’한 경계 추구-김입지, ‘杳冥’한 이상공간과 서정자아의 변주-박인범·최치원, ‘愁艷’한 敍景과 ‘達意’-최광유·최승우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⁴⁴⁾ 특히 김입지의 시는 일본에서 편찬된 『千載佳句』에 주로 전하는데, 당시인에게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철학성이 잠재된 시 정신이 일본인들을 매료시켰을 것이라 하며, 김입지가 이룩한 성과가 박인범, 최치원을 비롯한 후대의 문인들에게 전승되어 만당풍과 신라 한시의 차이점을 형성시켰다는 것이다.⁴⁵⁾

앞서 살펴 본 <朗慧和尚碑銘>에서 최치원이 자신을 문학가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불만을 느끼고, 사상가로도 평가해주기를 은연중에 기대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풍류’의 개념어를 재인식시켜 思想史의 구도를 다시 기억시키려던 시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존하는 신라한시에서 김입지의 수준에 필적할 만한 사상성을 후배 작가들에게서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이지만, 향가의 서정성이 이르지 못한 영역에 신라 향가의 個性이 존재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송은 앞서 <법계도>, 일명 <法性偈>를 살펴 보기도 하였거니와, 자장·원효·의상·표훈·명효·태현 등 주로 7·8세기에 당

44) 호승희, 앞의 글, 93~170면.

45) 호승희, 앞의 글, 115면.

유학 경험이 있거나 唯識·華嚴·密敎 계통에 속하는 사상가들이 많이 창작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감성적, 비유적 표현은 그리 눈에 띄지 않고, 몇 가지 개념어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서술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誓願과 실천의 자세를 강한 어조로 피력하는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도 이들은 향가와 같은 시기의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감탄문 형태로 자신의 결심 혹은 경전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는 관습은 향가의 시상 종결 방식과 통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⁴⁶⁾

요컨대 신라 향가는 일승의 언어와 삼승의 언어 사이의 상호 작용과 침투를 통해 서정성과 효용성, 감성의 영역과 수사방식의 층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와 계송에서는 사회적 효용성의 목소리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대신, 사상성의 구축과 종교적 인식의 심화를 통한 서정시로서의 개성이 한결 강해진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6.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은 <추동기>를 통해 ①일상어, ②삼승의 언어(논리적 수사), ③일승의 언어(문학적 수사, 시어)를 구별하고, 특히 ③에 독자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 근거는 일승의 언어만이 포함관계와 동질관계를 混融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계도>를 통해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종교적 경지를 화엄일승의 시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원효는 의상과는 달리 삼승의 언어가 일승의 언어에 비해 다소 제약이 있지만 나름의 효용성을 발휘할 만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46) 明晶, <海印三昧論>의 序偈와 말미의 廻向偈와 太賢, 『菩薩戒本宗要』의 序偈와 말미의 廻向偈를 비롯한 몇 편의 계송이 그러하다.

와 같은 언어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통해 여러 가지 쟁점[諍]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 사이의 조화·공존[和]을 가능케 했던 ‘화쟁’의 수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셋째, 최치원은 사상가와는 구별되는 문학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텍스트를 과거와 미래의 시간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문학과 사상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언어·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풍류’라는 개념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넷째, 이상의 문학론에 힘입어 신라 향가는 일승의 언어와 삼승의 언어 사이의 상호 작용과 침투를 통해 서정성과 효용성, 감성의 영역과 수사방식의 층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시와 계송에서는 사회적 효용성의 목소리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대신, 사상성의 구축과 종교적 인식의 심화를 통한 서정시로서의 개성이 한결 강해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본고에서 소략하게 살펴본 사상가와 자료들에 대한 보다 충실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초기 서정문학사의 입체적 地層을 조망하는 것에 있다. 특히 의상, 최치원에 비하여 상당히 著述을 남기고 있는 원효 사상의 全面에 대한 탐색과 함께, 김입지의 성과가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동시대문학으로서 향가와 계송의 관련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元 曉 『金剛三昧經論』, 『韓國佛教全書』 1.
 _____, 『大乘起信論疏·別記』, 『韓國佛教全書』 1.
 _____, 은정희 역, 『大乘起信論疏·別記』, 일지사, 1991.
 _____, 은정희·송진현 역, 『金剛三昧經論』, 일지사, 2002.

- 義 相, 『錐洞記』 ([華嚴經問答]), 『大正新修大藏經』 45.
- 崔致遠, 최영성 역, 『최치원전집 1: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2·3, 駕洛國史蹟開發院, 1992.
- 허남진 외 편역, 『한국철학자료집: 불교편 1』, 서울대 출판부, 2005.
- 『大正新修大藏經·卍續藏經 CD-Rom』, CBETA, 2008; ver 3.7.
- 『三國史記·三國遺事 CD-Rom』, 두계학술재단, 1999; ver 3.2.
- 김상현, 「향가와 계송과 불교사상」,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248~270면.
- _____, 「추동기의 성립과 그 이본 화엄경문답」,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338~353면.
- 김성룡, 「원효의 글쓰기와 중세적 주체」, 『한국문학사상사 1』, 이회, 2004, 64~90면.
- 김지건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 민족사, 1989, 1~884면.
- _____, 「의상의 법회고」, 『의상의 사상과 신앙 연구』, 불교시대사, 2001, 44~100면.
-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61~160면.
- 김호성·윤옥선, 『한글대장경 238: 法界圖記總隨錄 外』, 동국대 역경원, 1994, 1~224면.
- 박태원, 「화엄경문답과 의상의 일승·삼승론」, 『원효와 의상의 통합사상』, 울산대 출판부, 2004, 78~105면.
- _____, 『의상의 화엄사상』, 울산대 출판부, 2005, 53면.
-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1~226면.
- 이구의, 『신라한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1~550면.
- _____, 『최치원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4, 392~533면.
- 이도흙, 「신라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1~

296면.

- _____,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 출판부, 1999, 1~503면.
- _____, 「화엄의 페러다임으로 향가와 현대시 엮어 읽기」, 『고전시가 엮어 읽기』(상), 태학사, 2003, 178~192면.
- 장원철, 「향가와 한시: 향가적 서정과 한시 미의식의 역사적 성립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15, 한국한문학회, 1995, 5~52면.
- 조동일, 「원효」, 『한국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1978, 44면.
- 최영성, 「고운의 문장과 사상표현의 문제」,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1, 126면.
- 최유진, 「원효에 있어서 화쟁과 언어의 문제」,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예문서원, 2002, 364~373면.
- 한홍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한국고대음악사상』. 예문서원, 2007, 26~28면
- 호승희, 「신라한시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93~170면.

AbstractLiterary Theories of Shilla and the Development of old
Korean Poetry

Seo, Cheol-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ope for a clue to the foundation of old Korean Poetry by assorting discussions about the nature and effect of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work of three thinkers of Shilla: Euisang(義相), Wonhyo(元曉), Choi, Chi-won(崔致遠).

The special feature of Euisang's philosophy of language in Choodonggi(錐洞記) is the distinction between everyday language, rhetorical language, poetic diction. The independent value of poetic diction is the coexistence of the metaphor(卽) and the metonym(中). He expressed impenetrable religious mystery by this poetic diction in Beopkyedo(法界圖). But Wonhyo has a point of difference with Euisang. He emphasized the usefulness of both rhetorical language and poetic diction. By this cognitive faculty, Wonhyo has reached the Hwajaeng(和諍): match up all point of dispute. 2 centuries later, Choi Chi-won has caught the writer's role, distinguished with the thinkers'. He wished to extend the text to the past and future. For his wishes, the interactions between literature and thought are very important. So he have a new understanding of Poongryoo(風流): the characteristics of old Korea.

Stand on this result, the history of the old Korean poetry can be rearranged in some items. they are lyric and usefulness; rhetorical language and poetic diction.

Key words : Shilla, Literary Theories, Wonhyo, Euisang, Choi Chi-won, Hyangga, poetic diction, Choodonggi(Hwaeomkyungmoondap), Hwaeom, Hwajaeng

논문투고일: 2009.2.28. 심사완료일: 2009.5.25. 게재확정일: 2009.6.01.

